

최적성이론에 의한 ‘빙’의 통시적 변화 연구*

조성문

(한양대학교)

Cho, Sungmoon. 2009. A Study of ‘빙’’s Temporal Change in Optimality Theory.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17(2). 93-110. This paper is to analyze ‘빙’’s temporal change in Optimality Theory. At first, we talk about the problem which ‘빙’ was vanished for a certain reason, and then I explain ‘빙’’s temporal change that had been vanished since 16th century in Optimality Theory. ‘빙’ is regulated Sunkyeongeum of voiced sounds in Hunminjeongeum. We regard general view that a phonetic value realize [β]. This ‘빙’ is defined by the environments of voiced sound between vowels, between [r] and vowel, and between ‘△’ and vowel. To begin with, there is a problem that ‘빙’ might exist before the middle of Korean. We require serious research on what time it begins. What we make a next discussion is why ‘빙’ happened and what aspect is. We estimate the disappearance of ‘빙’ between the latter of 15th century and the middle of 16th century: ‘빙’ changed to ‘w’. There are many examples which changed to ‘w’ in a written word. Therefore, we conclude that ‘빙’ disappeared in the past of 16th century.

Key Words: 빙, △, temporal change, Optimality Theory, Hunminjeongeum, the middle of Korean

1. 서론

이 연구의 목적은 순경음 ‘빙’의 통시적 변화를 최적성이론에 의해서 분석하는 것이다.¹⁾ 우선 ‘빙’이 어떻게 변화하여 소실되었는가를 논의하고, 그 통시적 변화를 최적성이론에 의해서 설명하려고 한다. ‘빙’은 <훈민정음 해례> 제자해에 순경음으로 기술되어 있다. 그 내

* 본 논문이 좀더 나은 논문이 되도록 심사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께 감사를 드린다. 논문에 심사위원들의 수정 지시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그 외에 발행하는 모든 문제는 필자의 책임임을 밝히둔다.

1) 최적성이론에 대한 개략적인 소개와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용을 보면 그 음가는 유성 양순마찰음인 [β]로 보인다. 다만, ‘봉’은 훈민정음 17자 초성 체계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훈민정음 해례> 용자례에 보면 초성의 하나로 제시되어 있다. 이것은 ‘ㅇ’이 17자 초성 체계에 포함이 되었으면서도 용자례에서는 제외된 것과 대조를 이룬다. 이점은 ‘ㅇ’은 국어의 음소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봉’은 국어의 한 음소로 인정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본다.

국어의 음운사에서 순경음 ‘봉’의 변화만큼 많은 연구자들의 논의 대상이 된 주제도 없다. 이 문자는 훈민정음 창제 직후의 시기에 잠깐 사용되었다가 곧 사라졌다. 그러나 이 문자의 존재는 소실 문자의 음가 추정 문제에서 출발하여, 국어에 한 때 유성음과 무성음의 대립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국어 음운사 논의의 중심에서 있었다고 하겠다.

‘봉’의 연구사를 개략적으로 검토해 보면, 이 소리를 음소로 보는 견해와 음소로 보지 않는 견해의 둘로 나눌 수 있다. ‘봉’을 음소로 보는 견해는 이승녕(1955), 김형규(1955), 허웅(1965), 김완진(1967), 이기문(1972), 김석득(1974), 최명옥(1978), 이철수(1984), 최범훈(1985), 강길운(1993), 박창원(1996), 김형주(1998), 김무림(2004) 등이다. 대다수의 학자들이 이 견해를 지지하고 있는데, 그 주장의 내용은 ‘봉’은 전기 중세국어 시기인 고려 중기부터 후기 중세국어 시기인 조선 초기까지의 사이에 나타났으며 ‘ㅂ’의 약화 및 탈락 과정을 밟은 것이라는 점이다.

반면 ‘봉’을 음소로 보지 않는 견해는 둘로 나뉜다. 하나는 ‘ㅂ’의 변이음이라는 주장과, 다른 하나는 ‘ㅂ’ 유지형과 탈락형의 어원적, 절충적 표기라는 주장이다. 전자는 박병채(1967), 황희영(1979) 등이 해당하고, 후자는 남광우(1960), 유창돈(1962), 서정범(1982), 김동소(1998), 조규태(1998) 등이 해당한다. 전자의 견해는 ‘봉’의 경우 국어의 모음간 ‘ㅂ’에 사용하여 발음상 표기의 합리화를 꾀한 것으로 보며, 국어에서 독립적인 음운으로 의식할 만한 실제 음이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후자의 견해는 ‘봉’은 음소로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ㅂ’의 변이음 및 방언음을 ‘以影補來’²⁾ 식으로 절충하여 표준형으로 정해 보급하려던 표기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 학자들은 소수이지만, 국어 음운사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방언과 대비하면서 ‘봉’이 우리 고유의 음소가 아니라 훈민정음 창제의 특수성에서 나온 표기법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견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음소를 부정하는 견해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우선, ‘변이음설’은 일부 자음인 ‘ㅂ, ㅅ’만 변이음 ‘봉, △’이 존재한다는 불균형성의 문제가 있다. 왜 다른 자음들은 변이음이 없고 이 자음들만 존재하느냐 하는 지적을 해결해야만 그러한 주장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ㅂ’ 유지형과 탈락형의 어원적, 절충적 표기라는 주장은 15세기 한글 문헌에 나오는 ‘ㅂ:봉’의 구분 표기가 오늘날의 음소 분석 기준으로 볼 때 ‘봉’을 음소로 처리해

2) 이영보래(以影補來)는 한자음 영(ㅇ)으로 래(ㄹ)음을 보충함으로써 중국음에 가깝게 낸다는 뜻이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소리가 바뀐 한자음을 본음과 같게 만들고자 꾀했던 <동국정운>에서, 우리말 한자어 중 ‘리울(ㄹ) 받침’으로 끝나는 말들은 중국어의 경우 ‘디글(ㄷ)’처럼 들리는 말들이었다.

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설명하지 못한다. 그리고 훈민정음으로 표기함에 있어서 어원적, 절충적 표기를 해야 할 필요성과 그 이론적 근거 및 원론 규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밖에 전사 및 차자 표기 자료와 15세기 한글 문헌 표기와의 차이를 어떻게 연계 해석해야 할 것인지 하는 문제와, 무엇보다도 같은 유성마찰음 계열인 '△, ○'이 비슷한 통시적 변화를 겪었다는 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문제도 안고 있다. 그러므로 '빙'은 <훈민정음 해례>의 기록대로 그 당시 음소로 인정하는 견해가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본 연구에서도 그렇게 논의를 진행하려고 한다.

이기문(1972)에 의하면 후기 중세국어에 있어서의 '빙'의 환경은 다음과 같이 모음간, 반모음과 모음 사이, 'ㄹ'과 모음 사이, '△'과 모음 사이에 국한되어 있었다.

- (1) '빙'의 환경
- a. v_v: 더벼(暑)
 - b. y_v: 대범(大虎)
 - c. r_v: 글발(文)
 - d. z_v: 웃보-(可笑)

그 동안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빙'의 음가는 유성 양순마찰음인 [β]이었고, 유성음 사이의 'ㅂ'에서 시작하여 'w'로 변화하였다는 사실은 대부분 받아들이고 있다. 즉 'ㅂ>빙>w'([p]>[b]>[β]>[w])의 변화라는 공식이 성립된 것이다. 이후의 여러 논의들은 이 변화 공식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다만, (1d)의 '웃보-'에서 파생 접미사 '-보-'는 굳이 '-브-'로 소급할 이유가 없다. 이 접미사는 모음 어간 뒤에서는 '-보-', 자음 어간 뒤에서는 '-브/브-'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빙'의 변화에 대한 앞으로의 논의에서 이 예는 제외하기로 한다.

그런데 오종갑(1981), 박창원(1996) 등은 순경음의 변화를 오히려 반대인 '빙>ㅂ'으로 보고 있다. 왜냐하면 유성음 환경에서도 '빙'으로 변하지 않고 존재했던 '나비, 괴별, 니불' 등의 예가 있기 때문이다. 'ㅂ>빙>w'의 변화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 예들은 예외적인 것이 되어 보다 문법을 복잡하게 만들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빙>ㅂ'으로 보면 '빙'을 가진 경우만 자음 앞에서 'ㅂ'으로 변한다고 설명하면 되므로 보편적인 현상으로 취급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먼저 어떠한 언어든 예외가 존재할 수 있는데, 그것을 포괄하기 위해서 음소의 전체 흐름을 반대로 본다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빙'은 중세국어 시기에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졌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즉 다른 시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유성음이 중세국어 시기에만 존재했다는 점이 그 근거가 된다는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성음 환경에서도 'ㅂ'으로 표기가 된 예가 당연히 존재할 수 있다고 본다.

대다수의 예가 ‘ㅂ’으로 표기가 되었다면 ‘ㅃ>ㅂ’의 변화가 타당하다고 할 수 있으나 실제로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다.

‘ㅂ>ㅃ>w’ 변화가 타당하다는 또 다른 증거는 ‘ㅃ’의 표기가 발견되기 전인 고대국어 단계에서 찾을 수 있다. 고대국어에서 어떤 것은 ‘ㅂ’이고 어떤 것은 ‘ㅃ’이라면 그 조건이 밝혀져야 할 것인데,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당시에 ‘ㅃ’이 존재했다는 확실한 증거도 쉽게 발견되지 않는다. ‘ㅃ>ㅂ’의 주장이 타당하다면 고대국어에도 ‘ㅃ’이 존재했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다면 ‘ㅂ>ㅃ>ㅂ’이라는 이상한 통시적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 이처럼 약화되었다가 다시 강화되는 변화는 어느 언어에서도 발견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주장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ㅂ>ㅃ>w’의 변화에 대한 또 하나의 증거는 일반 언어학적인 면에서도 찾을 수 있다. Trask(1996)에 의하면 대부분의 언어는 통시적인 변화에서 자음 약화 현상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있다. 그 자음 약화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2) 자음 약화의 유형

- a. 겹자음(geminate)>단자음(simplex)
- b. 폐쇄음(stop)>마찰음(fricative)>접근음(approximant)
- c. 폐쇄음(stop)>유음(liquid)
- d. 구강 폐쇄음(oral stop)>성문 폐쇄음(glottal stop)
- e. 비음이 아닌 음(non-nasal)>비음(nasal)
- f. 무성음(voiceless)>유성음(voiced)

특히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ㅂ>ㅃ>w’의 변화는 (2b)에 해당하는 가장 적절한 예라고 볼 수 있다. 통시적으로 보면 폐쇄음이 약화되어 마찰음이 되고 그 다음에 반모음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음의 약화 현상은 모두 유성음 사이라는 환경에서만 발생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오종갑(1981), 박창원(1996) 등의 주장은 그 반대의 모습이기 때문에 일반 언어학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 또한 자음의 약화에 대응하는 강화 현상인 자음의 무성음화는 주로 음절말에서 발생하는 것이라는 점도 근거가 될 만하다. 그러므로 개별 언어학적으로나 일반 언어학적으로 ‘ㅂ>ㅃ>w’의 변화가 타당하다고 본다.

이러한 논거를 기초로 본 연구에서는 ‘ㅃ’의 통시적 변화의 양상을 최적성이론의 제약 등급 변화로 설명하도록 하겠다. 다시 말하면, ‘ㅃ’의 발생에서 혼동, 그리고 소실을 모두 제약 등급의 변화로 살펴보려는 것이다.

2. '빙'의 통시적 변화

2.1 '빙'의 생성

고대국어 단계에는 '빙'이 존재했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다. 전기 중세국어의 단계인 14세기 이후에 와서 비로소 그 증거가 발견된다. 다만, 전기 중세국어의 자료인 <계림유사>의 표기에서도 '빙'의 존재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빙'이 없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것이 있었다 하더라도 한자에 의한 표기가 불완전하여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빙'과 비슷한 모습을 보인 유성마찰음 계열인 '△, ○'의 변화를 볼 때, 전기 중세국어 시기에 'ㅂ>빙'의 변화가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우리나라 한자음(東音)에는 중국어처럼 순중음과 순경음의 구별이 없었기 때문에, '빙'을 'ㅂ'과 구별해서 표기할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같은 시대의 자료인 <향약구급방>에는 '多里甫里'와 같이 표기되었던 것이다. 이 단어는 후기 중세국어 이후의 문헌에 '다리우리'로 나타난다. 이 단어가 14세기 전에 '다리보리'였다 하더라도 우리 한자음에는 순음에 경음의 구별이 없어서 '빙'을 정확히 표기할 방법이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전기 중세국어에 '빙'은 존재했지만, 그것이 표기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고 본다.

'빙'의 환경은 다음과 같이 유성음 사이에 국한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대체로 14세기에 이런 환경에서의 'ㅂ>빙'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 (3) a. 더버>더버(暑)
b. 글발>글발(文)

2.2 '빙'과 'ㅂ'의 공존

후기 중세국어 시기에는 표기상으로 분명히 '빙'이 존재한다. '빙'은 <훈민정음 해례> 제자해에 순경음으로 설명되어 있다. 이 설명이나 그 밖의 여러 증거로 보아 이 음소는 양순 유성마찰음 [β]로 실현되었던 것으로 믿어진다. 그 분포는 모음 간, 반모음, 'ㄱ' 또는 '△'과 모음 사이였다. '사비, 대법, 글발, 웅보리' 등이 그 예이다. 15세기 중엽의 자료인 <조선관역어>에서도 '빙'의 예를 찾을 수 있다. 다만 거기에 표기된 것은 '사비'와 '더본'뿐이다. '빙'은 <아미타경언해>와 <목우자수심결언해>에서도 나타나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세조 때의 문헌에는 극히 산발적이므로, 1450년대까지 존속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훈민정음이 창제된 이후 15세기 중엽이 음소 '빙'이 존재한 마지막 단계라고 하겠다. 이 후기 중세국어 시기의 예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4) a. 더버(暑)

b. 글밭(文)

그런데 유성음 사이라는 환경인데도 ‘ㅂ’으로 나타나는 예들이 일부 보여서 문제가 있다. ‘ㅃ’이 나오는 동일한 환경인데도 약화가 되지 않고 ‘ㅂ’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 (5) a. 나빈(蝶)
 b. 기별(報)
 c. 더블어(輿)

또한 후기 중세국어의 ‘ㅃ’이 현대국어의 경상방언에서 ‘ㅂ’으로 대응함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후기 중세국어의 ‘사비’가 동남방언에서는 ‘새비’로 대응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과 같은 점을 추정하게 해 준다. 일반적으로 유성음 사이라는 환경에서 ‘ㅂ>ㅃ’의 변화는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일부 단어나 방언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국어는 원래 유성음과 무성음의 대립이 없는데, 유성 마찰음계열과 같이 대립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형태가 나올 수 있었다고 본다. (5)의 예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냥 ‘ㅂ’으로 발화가 되었고, 그래서 ‘ㅂ>ㅃ’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아서 그대로 ‘ㅂ’으로 존재했던 것이다. 다른 자음과 모음의 변화는 있었지만 ‘ㅂ’의 변화는 없어서 (5)의 현대국어의 모습은 ‘나비, 기별, 이불, 더블어’이기 때문이다. ‘새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경상방언에서는 중앙방언과는 다르게 ‘ㅂ>ㅃ’의 변화를 겪지 않았고 ‘ㅂ’이 유성음 환경에서도 그대로 유지된 것이다. 그래서 ‘사비’가 ‘새비’로 변한 것이 아니라, 그냥 ‘사비’였고 그것이 추후에 움라우트 현상이 발생해 현재의 ‘새비’가 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 후기 중세국어의 시기에 있어서는 ‘ㅂ’과 ‘ㅃ’의 공존이 가능했다고 본다.

2.3 'ㅃ'의 소멸

후기 중세국어 시기 후반에 오면, 즉 15세기 중엽 이후에는 ‘ㅃ’은 문헌에서 사라졌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w’로 변했다고 하겠다. 그래서 ‘ㅃ>와, ㅃ>워, ㅃ>오, ㅃ>우’와 같은 변화를 겪은 것이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 (6) a. 더워(擧)(<더버)
 b. 글왈(文)(<글밭)
 c. 스ㄱ울(鄕)(<스ㄱ볼)
 d. 어려운(難)(<어려븐)

이렇게 '붕'이 소실한 원인은 유성 마찰음계열의 자음이 국어에서 문법적인 기능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즉, 국어의 특성상 유성음과 무성음의 구별이 중요한 기능을 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래서 앞서서도 언급한 것처럼 'ㅂ'과 '붕'이 병존했던 것이고 결국 '붕'은 'ㅂ'과 더불어 국어 체계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소멸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붕'이 소멸될 때 (6)의 예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있다. 일반적으로 'ㅂ>붕>w'의 변화로 순음성이 사라졌는데, '붕>∅'의 예가 있기 때문이다. 부사화 접미사나 피사동 접미사가 결합하는 경우 아예 그 음가가 없어졌다. 그 동안 왜 '붕'이 이 환경에서만 그 음가가 없어지는 것일까 하는 문제가 논의의 중심에 있었다. 대표적인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 (7) a. 고이(<꿍-+-이)
b. 설이(<췌-+-이)

이 예들은 '붕'을 가진 어간에 부사화 접미사가 결합된 경우로 표기만을 보면 완전히 순음성은 그 음가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다. 과연 어떤 것이 일반적인가? 대부분의 예들이 'ㅂ>붕>w'의 변화를 보였기 때문에 이 경우가 예외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같은 환경인 데도 'ㅂ>붕>w'의 변화를 보이는 다음과 같은 예들도 있기 때문이다.

- (8) a. 치위(<췌-+-이)
b. 더위(<뒹-+-이)

이 (8)의 예는 (7)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어간인 '췌-, 뒹-'에 명사화 접미사가 결합된 경우로 보아야 하는데, 표기만을 보면 순음성이 존재하므로 (7)과 다른 것이다. 그런데 이 경우는 김경아(1997)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때 결합하는 명사화 접미사가 '-이'가 아니라 '-이/의'였다는 점을 받아들이면 설명이 된다. 즉 이 같은 분석을 받아들이면 '치뵈>치위, 더뵈>더위'가 되므로 이것은 'ㅂ>붕>w'의 변화로 포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사화 접미사와 피사동 접미사의 경우만이 '붕'의 음가가 사라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유독 (7)의 예에서 이처럼 혼기가 발생한 것일까? 이와 관련하여 김완진(1972)에서는 그 당시 [wi]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결책을 이야기했다. 그러나 그 당시 음성 층위에서도 [wi]가 실현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할 수 없으며, 현대국어에서 '위'는 결국 [wi]로 실현되고 있으므로 [wi] 연쇄가 당시에 존재하지 않아서 '붕>∅' 현상이 일어났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김주필(2001)은 '붕'이 '이' 앞에서 탈락하는 이러한 현상과 관련하여, '오'나 '우'에 인접

한 ‘이’에서도 [원순성] 관련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했다. ‘오’나 ‘우’에 인접한 ‘이’에서 [원순성] 관련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그 [원순성]에 의해서 ‘이’에 대립되는 단모음이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원순성]에 대립되는 단모음 즉, ‘위’[ü]가 없었기 때문에 ‘빙’이 ‘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탈락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김주필(2001)의 설명도 문제가 있다. ‘빙’이 ‘아’나 ‘어’를 만나면 ‘와’나 ‘워’와 같이 이중모음으로 바뀌었는데, 왜 ‘이’만 단모음 ‘위’가 없어서 탈락했다고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아’나 ‘어’도 ‘빙’과 결합하여 이중모음으로 변화가 가능했다면 ‘빙’과 ‘이’가 만나 ‘위’로 바뀌는 것도 있다고 해야 더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생각할 수 있는 해결책은 ‘ㅂ>빙>w’의 변화가 일반적이라는 것이다. 다만 예외적인 ‘빙’의 경우는 다른 방법으로 설명해야 한다. ‘빙’이 ‘이’를 만나면 탈락하는 이유는 이것이 ‘ㅂ>빙>w’의 변화를 보인 다른 모음들과는 달리 조음 상으로 서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어서 결국 불완전한 반모음 ‘w’이 탈락했다고 보자는 것이다. ‘이’는 [-back]과 [-round] 자질을 갖고 있다. 그러나 반모음 ‘w’는 [+back]과 [+round] 자질을 갖고 있다. 이렇게 두 자질 면에서 일치하는 것이 없다 보니 연결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렇게 되면 [wi]가 없었다든지 단모음 [ü]이 없었다든지 하는 설명이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그러한 선행 연구들의 미봉적인 해결책보다는 본 연구의 해결책이 훨씬 더 타당하다고 본다.

3. 최적성이론의 분석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빙’의 변화를 최적성이론의 제약 등급 변화로 설명해 보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생성, 공존, 그리고 소멸 순으로 그 변화 양상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3.1 ‘빙’의 생성 전 단계

고대국어의 시기에서는 유성음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서 입력형 그대로 ‘ㅂ’이 발화되고, ‘빙’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본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 (9) a. 더버
- b. 글발

최적성이론에서는 음운변화를 충실성 제약과 유표성 제약의 상호 작용으로 보고 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도 그러한 두 제약의 상호작용으로 ‘빙’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겠다. 먼저, 충실성 제약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ㅂ’이 ‘빙’으로 바뀌는 것은 [continuant] 자질의 변

화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continuant] 자질의 변화를 막는 충실성 제약이 필요한 것이다.

(10) Ident-IO(continuant)

입력형과 출력형에 대응하는 분절음은 [continuant] 자질이 일치하여야 한다.

이와 대비되는 유표성 제약은 [continuant] 자질의 일치를 요구하는 다음과 같은 자질 일치 제약이다. 이 AGREE 제약은 [voice] 동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Lombardi(1999)에서 제안된 바 있다. 또한, 이세창(2005)에서도 'ㄹ' 불규칙 동사의 활용을 설명하기 위해 이미 이용되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다루는 'ㄹ'의 변화의 설명에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11) AGREE[continuant]

지속음 사이에서 지속성이 일치하여야 한다.

그런데 'ㄹ'의 기저형이 [p]인데, 그것이 모음 사이에서 유성성의 변화를 가져오므로 이와 관련된 충실성 제약 Ident-IO(voice)와 유성성의 일치를 요구하는 유표성 제약 AGREE[voice]가 또한 필요하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2) Ident-IO(voice)

입력형과 출력형에 대응하는 분절음은 [voice] 자질이 일치하여야 한다.

(13) AGREE[voice]

유성음 사이에서 유성성이 일치하여야 한다.

이 단계에서는 아직 'ㄹ>ㄹ'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위에서 제시한 제약들의 등급은 [voice]의 경우 유표성 제약이 상위에 있고, [continuant]의 경우는 충실성 제약이 상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14) 'ㄹ' 생성 전 단계의 등급

AGREE[voice] ≫ Ident-IO(voice) ≫ Ident-IO(continuant) ≫
AGREE[continuant]

이 제약을 (9)의 자료에 적용시키면 다음과 같다. 물론 이 시기에는 'ㄹ'이 발견되지 않는다.

(15) /더버/ → [더버]

/təpə/	AGR[voice]	Ident(voice)	Ident(continuant)	AGR[continuant]
a. təpə	*!			*
☐ b. təbə		*		*
c. təβə		*	*!	

(16) /글발/ → [글발]

/kirpal/	AGR[voice]	Ident(voice)	Ident(continuant)	AGR[continuant]
a. kirpal	*!			*
☐ b. kirbal		*		*
c. kirβal		*	*!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유표성 제약인 AGREE[voice]와 충실성 제약인 Ident-IO(continuant)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래서 이 두 제약을 어기지 않은 후보 (15b)와 (16b)가 모두 최적형으로 선택되었다.

3.2 '브' 생성 단계

전기 중세국어 시기에는 유성음 환경에서 '브'의 약화 현상이 발생해서 '브'으로 변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앞서도 살펴본 언어의 약화 현상인 '폐쇄음>마찰음>접근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유성적 환경에서 자음의 약화는 폐쇄음이 마찰음으로 바뀌는 것이다. 그래서 '브'이 유성마찰음인 '브'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물론 그 다음 단계에서는 '접근음'에 해당하는 반모음 'w'로 바뀌게 된다. 이것은 '브'의 소멸에서 다시 언급하도록 하겠다. '브>브' 변화의 예는 다음과 같다.

- (17) a. 더버>더버
b. 글발>글발

제약 등급으로 설명하면 이 단계는 [continuant] 자질을 일치시키려는 유표성 제약이 관련 충실성 제약보다 상위로 이동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제약 등급의 변화를 반영한 것은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 (18) '브' 생성 단계의 등급
AGREE[voice] ≫ Ident-IO(voice) ≫ AGREE[continuant] ≫
Ident-IO(continuant)

이 제약 등급을 (17)의 예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19) /더버/ → [더버]

/təpə/	AGR[voice]	Ident(voice)	AGR[continuant]	Ident(continuant)
a. təpə	*!		*	
b. təbə		*	*!	
☞ c. təβə		*		*

(20) /글밭/ → [글밭]

/kirpal/	AGR[voice]	Ident(voice)	AGR[continuant]	Ident(continuant)
a. kirpal	*!		*	
b. kirbal		*	*!	
☞ c. kirβal		*		*

위의 예에서는 유표성 제약인 AGREE[continuant]가 상위 등급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래서 [continuant] 자질을 일치시킨 '빙'음을 가진 후보 (19c)와 (20c)가 모두 최적형으로 선택되었다.³⁾

3.3 '빙'과 '브'의 공존 단계

앞에서 제시한 제약 등급은 그대로 후기 중세국어에 이어진다. 그러나 원래 국어에서 '브'와 '빙'의 대립이 중요한 기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브>빙'의 변화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그래서 '빙'과 '브'이 유성음 환경에서 함께 나타나는 혼란이 오게 된다. 그러다 보니 제약 등급도 안정되지 않고 변동이 생기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유성적 환경에서 '빙'과 '브'이 함께 등장하는 예는 다음과 같다.

(21) a. 더버

b. 글밭

(22) a. 나빈

b. 괴별

3) 여기에서 '빙'을 왜 기저형으로 제시하지 않았느냐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앞에서 음소로 인정하는 견해를 제시했기 때문이다. 물론 표기상 발견되기 때문에 명확히 그 내용을 밝혀야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빙'이 나타나서 사라졌는가를 제약 등급의 변화로 설명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빙'을 기저형으로 삼지 않은 것이다. 만약 기저형을 '빙'으로 삼게 되면 제약 등급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21)의 예는 유성음 사이의 환경에서 ‘빙’이 유지되는 것을 보여주고, 반면에 (22)는 같은 환경인데도 ‘빙’이 아닌 ‘비’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표기의 혼란이라기보다는 각각 다른 변화를 보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1)는 ‘ㅂ>ㅍ’의 변화를 보인 것이고, (22)는 그러한 변화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보자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상방언에서는 ‘ㅂ>ㅍ’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어는 원래 유성음과 무성음의 대립이 중요한 기능을 하지 않는데, 유성 마찰음계열과 같이 대립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형태가 지속될 수 있었다고 본다. (22)의 예처럼 ‘ㅂ>ㅍ’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 그대로 ‘ㅂ’이었던 것이다. 후기 중세국어 이후 다른 자음과 모음의 변화는 있었지만 ‘ㅂ’의 변화는 없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22)의 현대국어 모습은 그대로 ‘나비, 기별’라고 할 수 있다. 경상방언의 ‘새비’도 마찬가지이다. 경상방언에서는 ‘ㅂ>ㅍ’의 변화를 겪지 않았고 ‘ㅂ’이 유성음 사이라는 환경에서도 그대로 유지된 것이다. 그래서 그냥 ‘사비’였다가 거기에 음라우트 현상이 발생해 현재의 ‘새비’가 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 후기 중세국어의 시기에 있어서 ‘ㅂ’과 ‘ㅍ’의 공존이 가능했다고 본다.

그렇게 되면 (21)은 유표성 제약인 AGREE[continuant]가 충실성 제약보다 상위 등급에 있지만, (22)는 충실성 제약인 Ident-IO[continuant]가 유표성 제약보다 상위 등급에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22)는 전기 중세국어 이전 단계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결과적으로 (21)과 (22)는 각각 다른 단계의 변화를 보였다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을 등급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23) a. ‘ㅂ>ㅍ’ 변화 등급: AGREE[voice] ≫ Ident-IO(voice) ≫
 AGREE[continuant] ≫ Ident-IO(continuant)
 b. ‘ㅂ’ 유지 등급: AGREE[voice] ≫ Ident-IO(voice) ≫
 Ident-IO(continuant) ≫ AGREE[continuant]

이러한 두 개의 제약 등급이 이 시기에 공존했었고, 그래서 각각 다른 모습을 보였다고 하겠다. 이 제약 등급을 (21)과 (22)에 각각 적용시키면 다음과 같다.

(24) ‘ㅂ>ㅍ’ 변화: /더버/ → [더벼]

/təpə/	AGR[voice]	Ident(voice)	AGR[continuant]	Ident(continuant)
a. təpə	*!		*	
b. təbə		*	*!	
☐c. təβə		*		*

(25) '브' 유지: /나βι/ → [나빈]

/napʌi/	AGR[voice]	Ident(voice)	Ident(continuant)	AGR[continuant]
a. napʌi	*!			*
☞ b. nabʌi		*		*
c. naβʌi		*	*!	

(24)에서는 유표성 제약인 AGREE[continuant]가, (25)에서는 충실성 제약인 Ident-IO(continuant)가 상대적으로 상위에 등급되어 있기 때문에 최적형 선택에 차이가 있었다고 하겠다. 그래서 (24)는 '빙'음을 가진 후보가, (25)는 '브'음을 가진 후보가 최적형으로 선택되었다.

3.4 '빙' 소멸 단계

15세기 중엽 이후부터는 앞서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빙'을 가진 예들은 매우 제한된 환경이라는 압박을 받게 된다. 또한 유무성의 구별이 이미 음소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결국 '빙'은 소실되고 만다. 다만, 그것이 그냥 탈락하는 것이 아니라 앞의 (2)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폐쇄음>마찰음>접근음'이라는 자음의 약화 단계에 따라 반모음 'w'로 변하게 된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 (26) a. 더워
b. 글왈

이제 새로운 제약과 등급의 변화가 필요하게 된다. 우선 [continuant] 자질을 유지하려는 유표성 제약이 하위 등급으로 내려가야 한다. 그 다음에 새로운 유표성 제약과 충실성 제약이 필요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서 이세창(2005)에서 이미 언급한 적이 있다. '빙'과 'w'는 다른 자질은 모두 같은데 오직 자음성 자질 [consonantal]과 공명성 자질 [sonorant]에서만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모음의 무표적인 자질은 [-consonantal]과 [+sonorant]라는 점이다. 이것을 고려한다면 '빙'이 'w'로 변하는 것은 유성음 사이의 환경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동화현상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유표성 제약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다고 본다. 만약 유성음 환경에서 '빙'을 금지하는 유표성 제약이 존재한다면 '빙>w'의 변화는 이 제약을 피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consonantal]과 [sonorant] 자질 값을 바꿔주면 유표성 제약의 위반을 피할 수 있게 된다. 그 유표성 제약은 [consonantal]과 [sonorant] 자질의 일치를 요구하는 제약 AGREE[consonantal/sonorant]이다. 물론 이 제약에 상대되는 충실성 제약도 필요하다. 그 두 제약은 다음과 같다.

(27) AGREE[consonantal/sonorant]

유성음 환경에서 자음성과 공명성 자질은 일치하여야 한다.

(28) Ident-IO(consonantal/sonorant)

입력형과 출력형에 대응하는 분절음은 [consonantal]와 [sonorant] 자질이 일치하여야 한다.

이 두 제약을 포함한 새로운 제약 등급은 다음과 같다.

(29) AGREE[voice] ≫ Ident-IO(voice) ≫ AGREE[consonantal/sonorant]
 ≫ AGREE[continuant] ≫ Ident-IO(continuant) ≫ Ident-IO
 (consonantal/sonorant)

(29)의 제약 등급을 (26)의 예에 적용시키면 결국 ‘빙’은 ‘w’로 변하게 된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30) /더버/ → [더워]

/təpə/	AG[voi]	Id(voi)	AG[con/son]	AG[cont]	Id(cont)	Id(con/son)
a. təkə	*!		*	*		
b. təkə		*	*!	*		
c. təkβə		*	*!		*	
☞ d. təkə		*			*	*

(31) /글밭/ → [글왈]

/kirpal/	AG[voi]	Id(voi)	AG[con/son]	AG[cont]	Id(cont)	Id(con/son)
a. kirpal	*!		*	*		
b. kirbal		*	*!	*		
c. kirβal		*	*!		*	
☞ d. kirwal		*			*	*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AGREE[consonantal/sonorant] 제약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 제약이 상위에 등급되어 ‘w’를 가진 후보 (30d)와 (31d)가 모두 최적형으로 선택되었다.

그런데 2.3.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빙’이 소멸될 때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ㅂ>빙>w’의 변화로 순경음이 사라졌는데, ‘빙>∅’의 예가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부사화 접미사나 피사동 접미사가 결합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 (32) a. 고삐>고이
b. 설삐>서리

이 예들은 '붕'을 가진 어간에 부사화 접미사가 결합된 경우로 표기만을 보면 완전히 순경음은 그 음가가 사라진 것이다. 여기에서 생각할 수 있는 해결책은 조음상의 거리로 설명하는 것이다. 즉, '붕'이 '이'를 만나면 탈락하는 이유는 이것이 'ㅂ>붕>w'의 변화를 보인 다음 'w'이 조음 상으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이'와 만나게 되어서 결국 불완전한 반모음 'w'가 탈락했다고 보자는 것이다. '이'는 [-back]과 [-round] 자질을 갖는 모음이다. 그런데 반모음 'w'는 [+back]과 [+round] 자질을 갖는다. 이렇게 [back]과 [round]의 두 가지 자질에서 일치하는 바가 없다 보니 연결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여기에서 설정할 수 있는 제약이 바로 AGREE[back/round]다. 앞에서 AGREE[consonantal/sonorant] 제약으로 [β]와 [w]의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i]와 [w]의 문제를 AGREE[back/round]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이 제약은 다음과 같다.

(33) AGREE[back/round]

유성음 환경에서 후설성과 원순성 자질이 일치하여야 한다.

이 제약이 상위에 등급되어야 '붕'이 '이'를 만났을 때 탈락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이 유표성 제약에 상응하는 충실성 제약을 설정하여야 한다. 입력형의 음소가 탈락하는 것이기 때문에 Max-IO 제약을 설정하면 된다. 그 제약은 다음과 같다.

(34) Max-IO: 입력형의 모든 분절음은 출력형에 대응소를 가져야 한다.

이들 두 제약을 포함한 새로운 제약 등급은 다음과 같다.

- (35) AGREE[voice] ≫ Ident-IO(voice) ≫ AGREE[consonantal/sonorant],
AGREE[back/round] ≫ AGREE[continuant] ≫ Ident-IO(continuant)
≫ Ident-IO(consonantal/sonorant), Max-IO

유표성 제약 AGREE[back/round]는 [i]와 [w]의 문제에만 관련되기 때문에 상위에 등급되지만, AGREE[consonantal/sonorant] 제약과는 등급의 구분이 필요없다. 마찬가지로 Max-IO도 Ident-IO(consonantal/sonorant) 제약과의 등급 구분이 필요없다.

이 (35)의 제약 등급을 (32)의 예에 적용시키면 결국 '붕'은 탈락하게 된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36) /고비/ > /고뵈/ → [고이]

/kopi/	AG[v]	Id(v)	AG[c/s]	AG[b/r]	AG[cont]	Id(cont)	Id(c/s)	Max
a. kopi	*!		*	*	*			
b. kobi		*	*!	*	*			
c. koβi		*	*!	*		*		
d. kowi		*		*!		*	*	
☐e. koi								*

(37) /설비/ > /설뵈/ → [서리]

/sjərpi/	AG[v]	Id(v)	AG[c/s]	AG[b/r]	AG[cont]	Id(cont)	Id(c/s)	Max
a. sjərpi	*!		*	*	*			
b. sjərbi		*	*!	*	*			
c. sjərβi		*	*!	*		*		
d. sjərwi		*		*!		*	*	
☐e. sjəri								*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AGREE[back/round] 제약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 제약이 상위에 등급되어 ‘ㅂ’이나 ‘ㅃ’이 탈락한 형태를 가진 후보 (36e)와 (37e)가 모두 최적형으로 선택되었다. 이상으로 최적성이론에 의한 ‘ㅃ’의 통시적 변화에 관련된 모든 현상이 설명되었다고 할 수 있다.

4. 결론

지금까지 ‘ㅃ’의 통시적 변화를 최적성이론에 의해서 분석하고 설명하였다. 우선 ‘ㅃ’의 음가를 논의한 다음 그것이 어떻게 변화하여 소실되었는가를 논의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ㅂ>ㅃ>w’의 변화를 거치는 것으로 보았다. 그 근거는 개별 및 일반 언어학적으로 뒷받침하였다. 그 다음에 ‘ㅃ’의 통시적 변화를 시대별로 제시한 다음 최적성이론의 제약 등급의 변화에 의해서 설명하였다. 즉, 유표성 제약과 충실성 제약의 등급 변화로 ‘ㅃ’의 통시적인 흐름을 살펴본 것이다. ‘ㅃ’이 나오기 전 단계인 고대국어 시기부터 시작해서 ‘ㅃ’이 생성된 전기중세국어 시기를 거쳐, ‘ㅃ>w’ 및 소실의 모습을 보이는 후기중세국어 시기까지 차례대로 ‘ㅃ’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았으며, 그러한 변화를 최적성이론으로 효과적으로 설명하였다. 예외적인 현상도 함께 효과적으로 설명하였다. 앞으로 좀더 상위 단계인 유성 마찰음 계열의 자음 ‘△, ㅃ, ㅇ’의 통시적 변화를 함께 묶어 논의할 계획이다.

참고문헌

- 강길운, (1993). *국어사정설*. 대구: 형설출판사.
- 김경아, (1997). $\beta > w$ 에 대하여. *한국문화*, 17, 17-42.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 김동소, (1998). *한국어 변천사*. 대구: 형설출판사.
- 김무림, (2004). *국어의 역사*. 서울: 한국문화사.
- 김석득, (1974). 《한글갈》, 없어진 글자의 상고. *나라사랑*, 14, 1-25. 외솔회.
- 김완진, (1967). 한국어발달사(상). *한국문화사대계*, V, 115-164. 서울: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 김완진, (1972). 다시 $\beta > w$ 를 찾아서. *어학연구*, 8(1), 51-62. 서울대 어학연구소.
- 김주필, (2001). ㅁ의 [순음성] 관련 현상과 ㅁ로의 약화. *국어학*, 38, 27-55. 국어학회.
- 김형규, (1955). *국어사*. 서울: 백영사.
- 김형주, (1998). *우리말 발달사*. 부산: 세종출판사.
- 남광우, (1960). *국어학논문집*. 서울: 일조각.
- 박병채, (1967). 한국문자발달사. *한국문화사대계*, V, 415-485. 서울: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 박창원, (1996). *중세국어 자음 연구*. 서울: 한국문화사.
- 서정범, (1982). *음운의 국어사적 연구*. 서울: 집문당.
- 오종갑, (1981). *국어 유성마찰음의 변천에 관한 연구*. 영남대 박사학위논문.
- 유창돈, (1962). 15세기 국어의 음운체계. *국어학*, 1, 5-24. 국어학회.
- 이기문, (1972). *개정판 국어사개설*. 서울: 탑출판사.
- 이세창, (2005). 불규칙용언의 역사적 변천과 제약서열의 변경. *음성·음운·형태론 연구*, 11(2), 337-351. 한국음운론학회.
- 이승녕, (1955). *국어음운론연구*. 서울: 한글학회.
- 이철수, (1984). *한국어사 상*. 서울: 삼일당.
- 조규태, (1998). 여린 비읍(ㅁ)에 대하여. *한글*, 241·242, 89-124. 한글학회.
- 최명옥, (1978). ㅁ, △와 동남방언. *어학연구*, 14(2), 185-194. 서울대 어학연구소.
- 최범훈, (1985). *한국어발달사*. 서울: 통문관.
- 허 응, (1965). *국어음운학*. 서울: 정음사.
- 황희영, (1979). *한국어 음운론*. 서울: 이우출판사.
- Lombardi, Linda. (1999). Positional faithfulness and voicing assimilation in Optimality Theory. *Natural Language and Linguistic Theory*, 17, 267-302.
- Trask, R. L. (1996). *Historical Linguistics*. Oxford University Press Inc.

조성문

133-791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17번지
한양대학교 인문과학대학 국어국문학과
전화: (02)2220-0738
이메일: mooni67@hanyang.ac.kr

Received: 31 March, 2009

Revised: 17 June, 2009

Accepted: 20 June, 2009